제18차 통상추진위원회
1호 안건

공 개

WTO「무역과 환경」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

2021. 3. 2.

산 업 통 상 자 원 부

Ⅰ. 논의 대두 배경

◇ **新기후변화체제가 본격화**되는 가운데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도입,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, 코로나19 영향으로 **환경 논의가 급부상**

1. 新기후변화체제 본격화

□ 기후변화대응 관련 교토의정서 체제('05-'20년)가 끝나고, **파리협정**('15년 채택, '16년 발효)**에 따른 신기후체제가 본격적으로 적용**

○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파리협정은 **모든 참여국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**

□ 파리협정 이행관련 **각국의 목표 상향 조정·실천**을 위한 '19.9월 UN 기후정상회의 이후, **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新패러다임으로 대두**

○ **'20년말**까지 참여국들은 상향된 **국가결정기여**(NDC)와 **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**(LEDS)을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

- 110여개국 **탄소 중립 선언** (韓, EU, 日 등 2050년, 中, 브라질 등 2060년까지)

2.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글로벌 이슈화

□ 각국의 온실가스감축 이행에 있어서 탄소누출(carbon leakage) 문제 해결을 위해 **美, EU 등 주요국**은 **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가시화**

○ **(美)**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는 **바이든 대통령**은 취임 첫 날 **파리협정 복귀**를 지시하였으며, 후보시절에는 **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약**

○ **(EU)** '19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발표, **'21년 상반기 중 공식 입법절차 개시 예정** (탄소세·탄소관세·배출권거래제 중 택일)

3. 코로나19 영향

□ '20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, 사회적, 경제적 비용 초래는 **기후변화와 같은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 제고**

Ⅱ. WTO 「무역과 환경」 논의 현황

◇ 그간 EGA 좌초 등 지지부진하였던 **무역과 환경 논의**가 최근 WTO 복수국간협의체(TESSD) 출범 등으로 **활성화 움직임**

1 무역과 환경위원회 논의 (CTE)

○ **(경과)** '01년 DDA 협상에 환경 의제가 포함되면서 '02년 무역과 환경 협상을 개시*하였으나, **'11년 이후 실질적 논의 중단**

○ **(동향)** '17년 **화석연료보조금** 개혁(뉴질랜드 주도, 13개국), '19년 **플라스틱** 생산 저감·재활용(중국, 피지) 등이 제안되었으나, **진전 부진**

- CTE와 별도로 특정 이슈에 대해 **관심국간 복수국간 협의***가 추진 중

*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논의(【☞ 4번】'20년 결성, 50개국 참여), 기후변화·무역·지속가능성 협정 협상('19년, 5개국, 우리 미참여), 플라스틱과 지속가능 경제 논의('20년, 8개국, 우리 미참여)

2 환경상품협상 (EGA, 복수국간)

○ **(배경)** DDA 의제에 따라, '14년 **환경상품 무역 자유화**를 위한 **복수국간 협상**이 개시(한국, 미, EU, 중, 일 등 18개국 참여)

○ **(동향)** 최종 304개 품목(HS 6단위)을 대상으로 **'16년 합의도출을 시도**하였으나, 미중 이견,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협상동력 약화로 **협상중단**

3 환경 서비스 논의 (CTS)

○ **(배경)** '16년 EU가 **환경서비스 시장접근** 논의를 제안하였으나 진전이 전무하다가 '19년 **논의 재차 제안**(호주, 캐나다 등 5개국),

○ **(동향)** 아직 논의 진전이 크지 않은 가운데, '20년 기제안국은 **환경인접 서비스***를 **논의 대상에 추가**할 것을 제안

* 환경과 관련된 서비스로 엔지니어링, 건축설계, 건설, 유통, 컨설팅 등을 제안

④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논의 (TESSD)

* the Structured Discussions on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

○ **(배경)** CTE 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무역과 환경 논의 진전을 적극 희망하는 국가간 **차기 각료회의**(MC-12) **성과도출을 목표**로 **'20.11월 구성**

○ **(동향)** 한국, EU, 스위스, 호주 캐나다 등 총 **50개국 참여** 중이며, **'21.3월 첫 공식회의**를 시작으로 MC-12 전까지 최소 4차례 회의 개최 예정

○ **(전망)** 그간 WTO 논의에 미온적이었던 미국의 참여가 예상되며 주요국을 포함한 다수국 참여로 **무역과 환경 핵심 협의체가 될 전망**

Ⅲ. 향후 대응전략

◇ '21.3.5 TESSD 공식회의에서 ① 환경**상품** 무역자유화, ② 환경**서비스** 무역자유화, ③ **환경조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**를 위한 검토 개시를 내용으로 하는 **우리 제안서 제출 추진**

1. 기본방향

□ **(대응 방향)** **'20년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**로 다자협의체의 무역과 환경 논의에도 **적극 참여하고 선제적으로 주도**

○ **의제설정 단계**에서 우리입장 제안을 통해 **컨센서스 형성에 기여**하고 **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제고**하는 한편, **우리 관심분야 중심으로 의제 설정**

□ **(대응 채널)** **WTO TESSD**가 동 분야 핵심 협의체가 될 전망인 바 이를 **중심으로 대응하고** 우리 입장 제안

□ **(대응 방식)** **유사 입장국**(like-minded countries)**과 공조**를 통해 우리 제안에 대한 추진 동력 확보

2. 세부 추진 전략

1 [상 품] 환경상품 무역자유화

○ **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교역 대상인 상품**관련, 무역과 환경의 **상호 지지적** (mutually supportive) 관점에서 **환경상품 무역장벽 완화 제안**

- '12년 이미 합의된 APEC 환경상품 리스트(54개, HS 6단위)를 출발점으로 하되, '16년 EGA에서의 협상 대상 품목(304개, HS 6단위) 범위를 고려하여 **환경상품 관세 인하·철폐**를 제안

* 환경상품 품목 개방범위 논의시, 우리 관심품목 포함, 민감품목 제외 방향으로 추진

2 [서비스] 환경서비스 무역자유화

○ **급성장 중인 서비스 교역**에서는 **환경서비스 시장접근 확대 제안**

- DDA 및 TISA 시장개방 논의, CTS 논의 등을 기반으로 **환경서비스 시장개방을 제안**

* 우리가 다자, 양자에서 이미 개방한 CPC 94(환경서비스)를 중심으로 하되, 환경인접서비스도 포함 고려

3 [규 범] 환경조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

○ **(TESSD)** WTO 사무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(CBAM) 등 **환경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peer review 및 검토 제안**